

중독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이해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그리스도교 교양을 중심으로-*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world-view
on the addiction: focusing on Augustine's
CONFESSIONES and DE DOCTRINA CHRISTIANA

남규열 (Gyuyeol Nam)**

ABSTRACT

Gerald May argued that the biggest disaster which addictions cause to people is to destroy healthy relationships. This understanding is in line with Augustine's view of addiction. Of course, Augustine did not explicitly use the word "addiction." Augustine suggested that people should have in a triple relationship through the concept of 'Frui(enjoyment) and Uti(use)'. But what if people pursue love beyond this orderly relationship? Augustine calls it 'Abusio(abusion)'. Abusio is that people forget God and enjoy(Frui) the world that is the object of use(Uti).

What happens when we fall into 'Abusio'? we will not have a healthy relationship with the triune God. Naturally, we cannot enjoy the true joy and happiness that God gives us. In addition, we will not be able to see or experience God's nature that God reveals through the created world.

So how can we be freed from this abuse and addiction? So can we love God, fellow humans, and the world in harmony? Augustine says it is possible when men repent and welcome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Furthermore, Augustine proclaims that They are completely free from 'Abusio(abusion)' when men fully enjoys the triune God.

Key words: addiction, enjoyment, use, abuse, order, joy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7일 최종 수정, 6월 12일 게재 확정.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기독교상담 전공) 박사과정 수료, 부산광역시 대동로 64번길 25, barnabas123@naver.com

I. 서론

현대 한국사회의 중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현대문명이 발전할수록 중독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중독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음란물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 결과 점차 중독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럽게 게임과 음란물, 도박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사회에 있어 중독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는 보편적 증상이 되었다.

신성만은 중독상담학 개론에서 중독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물질중독이다. 물질중독에는 약물, 알코올, 담배 등이 있다. 둘째는 행동중독이다. 이 영역에는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성/관계 등이 있다(신성만 외, 2020: 33). 시대가 갈수록 중독의 영역은 더욱 다양화되어 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독증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제랄드 메이는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 안에 온갖 종류의 중독 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독 증상이 단지 알코올과 마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 관념, 관계, 권력, 유행, 상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도 알코올과 마약중독에 이르는 메커니즘이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제랄드 메이는 이런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관찰하고 연구한 후 인간은 모든 의미에서 중독된 상태라고 설파한다. 그는 그의 책에서 저자 자신조차도 중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한다(May, 이지영 역, 1991: 22).

그가 지적하는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중독은 인간을 이상승배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중독의 사슬에 매인 사람은 강박적으로 중독의 대상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소진해 버린다. 그 결과 중독자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여분의 에너지를 갖지 못하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인간의 중독을 어떻게 진단할까? 더 나아가 이런 인간의 중독적 성향을 치유하는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까? 본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과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어거스틴 사상을 통해 중독의 문제를 직접 연결해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쉽지만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교회사학자나 철학자들 중에도 어거스틴의 향유(Frui)와 사용(Uti)의 개념을 인간의 삶과 연결해 설명하는 경우는 자주 있다. 김은우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유하

고 다른 대상들은 사용하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은우, 2016: 62). 이것은 어거스틴의 질서 있는 사랑의 이론에 기초한 지적일 것이다. 윤석후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향유하려는 무질서한 사랑(cupiditas) 대신에 하나님을 향유하는 질서 있는 사랑(caritas)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악은 결국 무질서한 사랑(cupiditas)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윤석후, 2010: 136). 여기 나오는 악의 개념과 중독은 광의적 의미에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윤석후는 이 악의 개념 안에 구체적으로 중독이 포함된다는 언급은 하지 않는다. 양선건도 어거스틴의 향유와 사용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다. 특별히 그는 어거스틴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자기사랑에서 찾는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의 괴로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유하려 한 데 있다는 것이다(양선건, 2018: 129).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질서 있는 사랑 즉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유하므로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양선건이 말하는 괴로움도 사실 중독과 광의적으로 일맥상통한 개념이다. 그러나 양선건도 이 괴로움을 중독과 구체적으로 연결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럼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어떤가?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중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거스틴 사상과 연결해 중독을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기독교 상담학자들에게 있어서 어거스틴 사상은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기독교 상담학자들 중에도 어거스틴을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어거스틴 사상을 중독과 직접 연결해 논증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이걸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주된 연구주제가 인간의 임상적 정신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제랄드 메이는 그의 책 ‘중독과 은혜’에서 어거스틴을 인용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선물하려 하시지만 우리 손이 늘 가득 차 있어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May, 이지영 역, 1991: 30). 물론 제랄드 메이가 어거스틴을 인용해 말한 우리 손에 가득 찬 것은 우리의 중독의 대상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제랄드 메이는 어거스틴 사상에 기초해 중독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그는 어거스틴 사상의 중요한 개념인 ‘향유(Frui)와 사용(Uti)’의 개념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이걸 그가 정신의학자로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어거스틴의 ‘향유(Frui)와 사용(Uti)’ 개념이 상담학의 중요주제인 중독의 원인과 치유에 매우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거스틴 사상과 중독을 긴밀하게 연결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어거스틴 사상의 원류인 성경을 참고해 중독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인간과 중독에 대한 성경적 조명

1) 쾌락(기쁨)의 성경적 기원

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중독의 대상을 만들어 내는 걸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쾌락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창세기에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자. 창세기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예리하게 드러내는 책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한다. 당연히 이 때에 지음 받은 사람은 원죄에 오염되기 이전 상태였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 온 땅을 돌려 흘렀다고 묘사한다(창 2:10-14). 인류의 4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강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을 인간의 젖줄이라고 부른다. 창세기를 묵상하면 이런 인류문명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의 강과 인류문명의 발달을 촉진한 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성경의 강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젖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의 이미지는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회복된 에덴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강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계 22:1,2).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을 묘사한다. 이를 통해 사도요한은 종말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 성은 죄악 된 인류역사를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닌 원래 선하게 창조되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의 회복이다(Boring, 소기천 역, 1989: 310).

어떻게 종말에 죄로 깨어지고 파괴된 세상 문명과 인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가 깨어지고 타락한 영혼과 세상을 치유하기 때문이다(계 22:2).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흘러 나오는 강을 통해 날마다 풍성한 생명과 치유를 누렸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에서 흘러 나오는 강은 생명과 치유의 강이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동산의 특징은 기쁨이었다. 창세기의 에덴(עֵדֶן)은 히브리어 동사 아단(אָדַן)과 같은 어근이다. 아단(אָדַן)의 뜻은 ‘기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이다. 그래서 70인 역(SEPTUAGINT)은 에덴을 헬라어로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하고 있다(이병철 편, 1987a: 1569).

제랄드 메이는 에덴동산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라

고 언급한다. 그는 이사야서 51장 3절을 인용해 하나님이 메시아 시대에 이루실 일의 풍성함은 회복된 에덴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May, 이지영 역, 1991: 151). 그는 성경 속의 광야의 이미지를 우상을 숭배하는 중독의 불모지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그는 중독에서 자유롭게 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한 에덴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한다. 쉽게 말해 그에 의하면 인간은 중독의 광야를 지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인 것이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목적지 에덴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May, 이지영 역, 1991: 152).

송병현은 에덴을 ‘행복의 땅’이나 물댄 동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송병현, 2010: 109). 이 건 70인역(SEPTUAGINT)의 영향을 받아 에덴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땅이다. 더 나아가 송병현은 에덴동산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성막의 모형이라고 말한다. 이 성막을 통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성막의 지성소에는 에덴동산처럼 여러 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록(20,21장)에서는 성전과 낙원의 이미지가 겹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한다.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한다. 이때 거하다(σκηνώω)는 ‘장막을 치다’는 뜻을 갖고 있다(이병철 편, 1987b: 4637).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장막을 치시고 인생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라는 뜻이다(Milne, 정옥배 역, 1995: 56). 이와 동일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타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계 7:15-17)”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이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생명과 기쁨은 구약성경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자리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Mayes, 신정균 역, 2002: 132). 그러므로 시편 16편이 묘사하는 생명과 기쁨은 부활의 주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여 회복된 에덴으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타락 전에 태초의 아담이 누렸던 생명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2)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태초의 아담은 이런 거룩한 쾌락 속에서 완벽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아담이 이런 행복한 삶을 상실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이 영원한 에덴(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바로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었다.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과 열매는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창 3:16,17). 이 명령에 순종하므로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청지기임을 신앙고백하게 된다. 이런 신앙고백 하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복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명령을 어기고 만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선악과를 취한 것이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동산(기쁨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만다(창 3:22).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비를 하셨다. 에덴동산 동쪽 입구에 하나님의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이다(창 3:24). 이 때문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만다.

여기에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쾌락(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 받았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진정한 쾌락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 갈망은 믿음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 안에 잠재된 욕구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갈망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에덴동산(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3)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심령은 에덴(쾌락)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갈망을 채울 길은 없다. 그야말로 범죄 한 인간은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인간의 내면에 끝없는 갈등과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인은 이런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문제는 이런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더 큰 영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제랄드 메이는 이렇게 잘못된 갈망으로 고통 하는 인간의 상태를 성경의 광야 이미지를 채용해 설명한다. 한 마디로 광야를 헤매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모습이다. 제랄드 메이는 이

런 바깥 마른 인간 영혼의 해갈은 오직 하나님의 생수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제랄드 메이는 인간 영혼을 적시는 생수를 이사야서에 나타난 에덴동산 이미지 통해 제시한다. “나 여호와와가 ~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사 51:3)” 그는 에덴동산 즉 하나님의 생명수야말로 인간영혼의 황폐함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May, 이지영 역, 1991: 151).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중독과 우상숭배의 유혹이 가득한 광야를 잘 통과하면 종말에 완성될 회복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맘껏 누릴 것이라고 강조한다(May, 이지영 역, 1991: 229).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태도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태도를 우상숭배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상숭배 하면 보이는 형상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이런 행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 갈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모든 시도가 우상숭배적 행위다. 시편기자 다윗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시 16:3)” 이런 괴로움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인간의 중독의 고통과 거의 일치한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골 3:5)” 여기 나오는 탐심(πλεονεξία)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탐심은 세상의 다른 대상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시도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을 우상화시켜 버리고 만다.

그럼 이런 탐심의 대상은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은 풍부한 소유가 인간의 탐심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 무절제한 성욕이 탐심의 대상이라고 암시한다(엡 4:19). 이외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 대신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모든 게 탐심이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다(갈 5:19-21).

에드워드 웰치는 이런 인간의 모든 행태를 우상숭배라고 설명한다. ‘우상숭배’란 인간의 상태를 가장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말인 동시에 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중독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Welch, 김준 역, 2015: 77). 그는 이런 중독의 정의에 근거해 모든 중독의 본질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우상의 땅에서 복을 찾는 데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연인은 창조주에게서 돌아서 피조물 안에서 내면적 갈망의 만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요 탐욕이다. 이런 인간의 우상숭배적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재앙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데 무능해지는 것이다(May, 이지영 역, 1991: 14).

2. 인간과 종독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

1) 어거스틴의 향유와 사용

어거스틴은 그의 책 그리스도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에서 인간이 질서 있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건 바로 향유와 사용이다. 향유는 라틴어 'Frui'를 번역한 것이다. 사용은 라틴어 'Uti'를 번역한 것이다. 영어로 번역한다면 향유는 'enjoy'라고 번역하고 사용은 'use'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어거스틴의 교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것들이다.

그럼 '향유'란 무엇일까? 어거스틴은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물에 애착함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사용은 용도로 쓰이는 사물을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위해 쓰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귀향하는 나그네'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정의한다. 그럼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 당연히 삼위 하나님인 계신 에덴이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그네 된 우리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만 진정 행복할 수 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은 삼위 하나님만을 향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고향(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어거스틴은 사용(Uti)의 개념에 대해서도 '귀향하는 나그네'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진정 향유해야 할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상이나 바다의 탈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귀향 중에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나 운송수단의 움직임에 취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들을 향유하기로 변심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세상의 것을 향유하는 데 심취한 인간은 점점 삼위 하나님과 에덴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 1권에서 향유의 바람직한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한다. 그는 향유하기 위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7). 다시 말해 향유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사용의 대상은 우리가 행복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만약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할 때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을 제시한다. "만일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려고 한다면 우리 갈 길이 막히고 때로는 비뚤어진 다. 그 결과 열등한 사물에 대한 사랑에 말려들어 향유해야 할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수가 있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적 순례자인 인간이 목적지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사용해야지 향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그

의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향유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에덴의 어원에 근거해 표현한다면 그의 안에만 진정한 쾌락(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삼위 하나님만을 향유해야 한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2) 질서 있는 사랑의 체계

어거스틴은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질서 있는 사랑에 대해 설명한다. 기독교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삼중적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둘째는 동료 인간과의 관계다. 셋째는 세상 만물과의 관계다. 어거스틴은 이런 삼중적 관계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뤄지려면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바로 이해해 합당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향유와 사용의 적절한 적용일까?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향유의 대상이다. 그분 안에 완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른 대상을 의존해서 기쁨을 얻거나 행복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 자신 안에 완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향유의 대상이다.

둘째 동료 인간은 인간의 향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처럼 향유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 자체 안에 행복과 기쁨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향유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용의 대상이다. 여기서 인간이 사용의 대상이라는 건 인간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할 때 이런 향유와 사용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료 인간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향유할 때 하나님과는 구별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유하는 동료 인간을 통해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은 동료 인간 자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인간 모두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적 향유의 대상이 아니다. 향유의 대상인 동시에 사용의 대상이다. 여기서 사용이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동료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나와 동료 인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는 관점에서 인간관계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
기 위한 사용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어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한다. 필자는 어거스
틴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의 놀라운 통찰력에 놀랐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가에 대해 가
르침 받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언급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 1권에서 이렇게 교훈한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
똑똑히 지켜본다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향유해야 하는 그분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까닭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01).”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향유하
는 것처럼 자기자신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원
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인 이상 모든 인간의 자아는 행복과 기쁨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결코 향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통해 어거스틴은 자기
우상화를 경계한다.

여기서 필자는 좀 어거스틴의 설명에 모호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향유의
대상인 동시에 사용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자기자신을 향유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닌가? 필자는 이런 의문을 이렇게 해석했다. 인
간인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향유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다른 동료 인간처럼 나
도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 둔 의존적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처럼 나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여기고 향유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의 자아와의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배워간다는 관점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사용의 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더 엄밀히 지적한다면 사실 내가 나의 자아를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환대를 통해 나도 나의 자아를 환대할 힘을 얻기 때문이다. 대상을 통해 하나님
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관계가 바로 사용이다. 이런 면에서 나의 자아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사용의 대상이다. 내가 나의 자아와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 하
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어거스틴이 나 자신이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처럼
자신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걸 나 자신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
니다. 나 자신도 동료 인간에 대한 태도처럼 향유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기독교 교양의 전체
적 문맥상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향유하
되 자신의 피조성을 인식하므로 자기우상화를 경계해야 한다.

셋째 세상 만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용의 개념을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어거스틴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인간이 잘 관리해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용’의 개념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만물을 사용하므로 만물의 창조주를 더 깊이 이해하는 복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물을 신격화하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 왔다. 성경 속 이집트의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해 인류 역사 속에서는 태양과 달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그만큼 해와 달의 위용과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이 해와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해와 달은 우리 인간의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해와 달을 비롯한 자연만물을 신격화하고 숭배하지 않는다. 만약 자연만물을 숭배한다면 그건 남용이나 오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교양 1권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부당한 사용은 남용이나 오용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남용이나 오용 대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만물을 사용해야 한다. 즉 자연만물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한다.

이런 어거스틴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을 착취하는 현대 인류도 자연을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도리어 현대 인류의 자연 관리는 남용이나 오용에 가깝다. 어거스틴의 관점은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사용의 태도다.

삼중적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취할 향유와 사용의 적절한 태도를 라틴어로 정리해 보자. 1. Frui Deo(하나님을 향유하라) 2. Frui et Uti homo(인간을 향유하고 사용하라) 3. Uti mundo(세상을 사용하라). 향유(Fruī)의 대상은 그 자체가 절대적 선인 존재여야만 한다. 이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구 즉 사용(Uti)의 대상이다. 하나님 외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사용(Uti)의 대상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다. 인간은 절대적인 선을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사용(Uti)의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향유(Fruī)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독립적으로 향유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윤석후, 2010: 58). 도리어 철저히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향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인간은 자신에 대한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 살 때 인간은 질서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질서정연한 사랑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3) 인간과 중독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

제랄드 메이는 중독이 인간에게 끼치는 가장 큰 재앙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이해는 어거스틴의 중독에 대한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어거스틴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어거스틴은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통해 인간이 삼중적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질서 있는 사랑의 길을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런 질서 있는 관계를 벗어난 사랑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그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한다. 나그네는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탈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름다운 경치들을 감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인생이 자신의 운송수단과 스쳐 지나가는 경치에 빠져들어 그것들을 향유하게 되면 고향에 대한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거스틴은 이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선택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고향의 감미로움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미로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용의 대상인 세상을 향유하는 걸 오용(abusio)이라 부른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오용(abusio)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삼위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조된 세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고 깨달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자연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향유하다가 오용(abusio)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세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찾거나 볼 수 없다. 영적인 눈과 귀가 잘못된 사랑에 취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점점 더 깊은 오용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 교양 1권에서 하나님 대신 천사나 인간을 향유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천사도 인간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종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탁월한 사도들조차도 신자의 향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안내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25). 그는 이를 성경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바울의 교훈을 인용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전 1:12,13)”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인용해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교훈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교훈을 한다. 여기서 그는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선물하신 사역자들이라고 말한다. 고린도교회를 위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결국 고린도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전 3:4-7). 이런 말씀들을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사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향유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 모든 성도의 향유의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사역자들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 싸웠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아닌 사람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만다. 이런 행태를 어거스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오용(abusio)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질서 있는 향유와 사용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용(abusio)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두가 파괴되고 만다. 당연히 관계적 존재로 지어진 본질적인 인간됨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삶에 처하게 된다.

어거스틴의 오용(abusio)의 개념에 근거해 로마서 1장의 인간의 우상숭배와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우상숭배를 이렇게 설명한다.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로마서 1:23)” 하나님 대신 사용의 대상인 동물의 모양을 본 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향유하는 인간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묘사다. 이게 무엇인가? 어거스틴의 개념으로 말하면 바로 오용(abusio)이다. 특별히 이 오용은 사용의 대상인 사물이나 동물을 절대적 존재로 향유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어거스틴이 볼 때 무질서한 사랑이다.

질서의 파괴는 인간의 삶에 도미노 현상과 같은 부정적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오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인간은 또 다른 관계적 왜곡을 일으킨다. 바로 조화롭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파괴다. 그는 오용(abusio)의 열매가 관계를 파괴하는 온갖 악덕들이라고 설명한다(롬 1:26-31).

어거스틴이 말한 오용(abusio)은 인간 안에 중독과 집착의 성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오용하는 대상에 인간이 더욱 집착하게 한다. 이런 현상이 깊어지면 인간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더욱더 파괴적 중독현상에 빠져드는 것이다.

오용의 결과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중독현상과 유사한 묘사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라도 행로의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탈것의 움직임이 우리를 유쾌하게 한다 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을 향유하기로 변심한다면 여행을 빨리 끝내기도 싫어지고 그릇된 감미에 빠져 고향에서 멀어지게 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79).” 세상의 것에 빠져 사용할 것을 향유할 때 믿음의 여정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릇된 감미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감미로운 기쁨에 대한 열망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중독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3. 오용과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1) 어거스틴의 경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사람은 누구나 정도 차가 있지만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경험을 실례로 소개한다. 소녀 시절 모니카는 부모님의 술 심부름을 자주 했다. 모니카는 술을 병에 담기 전에 호기심에 술맛을 보았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반복되자 모니카는 술에 인이 박혔다. 어느 날 모니카는 하녀로부터 술꾼이라는 비난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즉시 술을 끊었다. 이 이야기 통해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유하려 할 때 누구든지 악습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05-206). 이처럼 어거스틴은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중독의 문제는 평생 씨름했던 문제였다. 특별히 그는 고백록에서 성 중독에 대한 고백을 자주 한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성적 갈등을 고백한다. 그는 정욕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 향해 돌아가려 했지만 이를 방해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어거스틴의 내면의 소리는 그를 향해 그 여자들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외쳤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87). 이것은 선을 열망 하지만 악을 선택하고 마는 바울의 고뇌와 매우 비슷하다(로마서7장).

고백록에는 어거스틴의 여성편력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동거한 여성 통해 아들까지 얻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권유로 다른 여성과 정식 결혼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식 결혼 전 그 여인과 정혼을 했다. 어거스틴은 결혼을 위해 아들까지 낳은 동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어거스틴은 정혼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2년간의 기다림에 돌입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는 중에 참을 수 없는 정욕에 굴복해 또 다른 여인과 동거하는 죄를 범했다. 그는 이게 순전히 정욕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고백록에서 그의 습관화된 성적 갈

망이 심각한 질병이 되었다고 말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38). 뿐만 아니라 자신은 정욕과 악습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인간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탐닉했던 그의 오용(abusio)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

어거스틴이 친구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에게 한 말은 이 당시 그가 얼마나 성적 쾌락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만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육체적 쾌락을 누리되 그것을 상실할 두려움도 없이 즐긴다 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39)” 이를 통해 회심 전 어거스틴이 얼마나 육체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노예화된 상태를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실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했지만 다른 사람의 죄사슬이 아니라 내 의지의 죄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적은 내 의지를 포로로 붙잡았고, 내 의지를 결박하는 사슬을 만들어, 그것으로 나를 묶어 두었습니다. 나의 타락한 의지는 육욕을 생산하고 또 육욕은 습관을 생산하고 습관은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유혹을 생산했습니다. 이것들은 조그만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단단한 사슬처럼 나를 꼼짝 못 하게 가두어 버렸습니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74).”

그는 여기서도 오용(abusio)이 중독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향유해야 할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향유하는 오용은 왜곡된 의지로부터 나온다. 그 결과 육욕이 따라오고 그 육욕을 계속 따를 때 습관이 형성된다. 그는 여기에 더해 습관이 더욱 더 강하게 자기 자신을 거슬러 자신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했다고 고백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74).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습관에 매여 오용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중독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서 7장:22,23절을 인용하며 자신 안에서 습관이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사로잡고 영적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마음을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바울 사도의 외침(롬 7:24,25)을 인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75).

그는 이런 악습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갈망한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기쁨과 행복을 갈망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기쁨을 원하는가라고 물으면 모두 예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이 기쁨 그 자체를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길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인생의 목표는 동일하게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44).”

그런데 어거스틴은 모든 인생이 행복과 기쁨을 원하지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 이유를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복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정상보다는 자기 힘으로 손쉽게 오를 수 있는 기쁨에 머무른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얕은 세속적 기쁨으로 대치하며 사는 것이다 (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45). 문제는 어거스틴 자신도 이런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악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68).”

그럼 그는 어떻게 이런 세속적 기쁨과 악습에서 자유케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향유하는 진정한 기쁨에 이르렀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한다. 그는 구원을 귀향으로 설명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7). 쉽게 말해 생명과 기쁨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성전으로의 귀향이다. 이를 통해 그는 오용과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 삼위 하나님을 향유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질서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를 통해 우리가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총 밖에 없다고 선포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7).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 강조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5).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유하게 하는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회심경험을 고백록에서 설명한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189). 어느 날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자신의 죄악과 노예상태에 대해 고민하며 번민했다. 이때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 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읽은 성경본문이 로마서 13장이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 이때 그는 즉시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내면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는 경험을 했다. 이를 볼 때 어거스틴의 회심은 듣고 읽으라는 어린이의 외침에 따라서 읽은 성경 말씀과 그의 영혼을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예상태(중독)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 은총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거스틴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향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달았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에덴의 기쁨이 그의 안에서 회복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향유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가 평생 갈망해 왔던 기쁨과 안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Augustinus, 김평옥 역, 1998: 245). 이런 그의 경험은 오용과 남용으로 얼룩진 노예상태(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81).

2) 수가 성 여인의 경험

요한복음 4장의 수가 성 여인의 사례도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향유함으로 가능하다는 진리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고통과 번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관계에 매달렸다. 그렇지만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당시 이미 다섯 명의 남자를 갈아치웠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그녀의 남성편력은 그녀가 어거스틴처럼 관계 중독의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그녀가 어떻게 이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가능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자기 파괴적 관계중독에 탐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유하므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용과 중독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유함으로써만 온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배정훈 외, 2022: 76). 그러므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물에 대한 오용이 아닌 하나님을 향유하므로 에덴의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III. 결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마음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한다. 자연인은 이 와중에 끊임없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는다. 이런 자연인의 모든 시도는 결국 오용으로 흐르고 만다. 오용이 반복될 때 인간은 악습의 굴레에 빠져 오용의 대상에 매인 노예가 되고 만다.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교훈하는 자기파괴적 중독의 진행과정

이다. 어거스틴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향유하려는 갈망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닳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세상의 늙어 빠진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1).

그럼 자연인이 어떻게 이런 오용과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세상을 조화롭고 규모 있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이는 치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아담은 불멸을 악용하여 멸망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을 선용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으로 죽은 인생들을 해방시키신 것이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93,94).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한다. 어거스틴은 성자를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이른다고 말한다.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도 동시에 강조한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키셔서 우리가 쇠하지 않는 최고 선 안에 늘 머무르게 해 주신다고 말한다(Augustinus, 성염 역, 2011: 129). 인생이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성전을 되찾으려면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인간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향해 자기의 온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때 은혜가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고 작용케 된다. 어거스틴이 오랜 영적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기쁨을 찾은 이유는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께 순복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소개된 신용원 목사의 체험은 중독에서 해방되는 영적원리를 잘 보여준다. 그는 젊은 시절 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마약중독 때문에 연이어 수감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하고 더욱 집착했다. 그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자살을 결심했다. 그는 자살 전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그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때 그는 강력한 성령체험을 했다. 그는 성령체험을 통해 마약을 능가하는 커다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이를 통해 마약이 주는 쾌감보다 성령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똑똑히 체험했다(국민일보 2015. 04. 17.). 이후 그는 34세에 신학대학에 입학해 목사가 되었다. 현재 그는 마약중독자 재활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는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은혜라고 간증한다(국민일보 2015. 04. 22.). 그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그의 순종의 열매다.

이런 실례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진정한 기쁨이 오면 세상의 것을 향유하는 왜곡된 기쁨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향유할 때 우리 안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인생의 진정한 고향 에덴으로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고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고향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의 실존이다. 이런 자는 지금 여기서 회복된 에덴을 누린다. 그리고 종말에 넉넉히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에 안겨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은우 (2016).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과 교육: 인식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 [Kim, E. W. (2016). Augustine's Happiness and Education: concerning epistemology.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준 역 (2015). **중독의 성경적 이해**. Edward T. W. (2001).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Kim, J. (2015)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Seoul: DMIBooks. Trans. Edward, T. W. (2001).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New Jersey: P&R Publishing.]
- 김평옥 역 (1998). **성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Augustinus, A. (400). 서울: 범우사.
- [Kim, P. O. (1998). *St. Augustine's Confession Book*. Seoul: Beomwoosa. Trans. Confessiones. Augustinus, A. (400).]
- 배정훈·우병훈·조윤희 (2022). **초대교회와 마음의 치유**. 군포: 도서출판 다함.
- [Bae, J. H., Woo B. H. & Cho, Y. H. (2022). *The first church and healing of the mind*. Gunpo: Book Publishing Daham.]
- 소기천 역 (2011). **요한계시록**. Boring, M. E. (1989). *Revelation*.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So, K. C. (2011). Revelation. Seoul: Korea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Trans. Boring, M. E. (1989).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 성염 역 (2011). **그리스도교 교양**. Augustinus, A. (397). *DE DOCTRINA CHRISTIANA*. 서울: 분도출판사.
- [Seong, Y. (2011). *DE DOCTRINA CHRISTIANA*. Seoul: Bundo. Trans. Augustinus. A. (397). *DE DOCTRINA CHRISTIANA*.]
- 송병현 (2010). **엑스포지멘터리-창세기**.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 [Song, B. H. (2010). *Genesis*. Seoul: International Disciple Training Institute for Book Publishing.]
- 신성만 (2020). **중독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 [Shin, S. M. (2020). *Introduction to Addiction Counseling*. Seoul: Hakjisa.]
- 신정균 역 (2002). **시편**. James, L. M. (1994). Psalms.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Shin, J. K. (2002). *Psalms*. Seoul: Korea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Trans. James, L. M. (1994). Psalms. Louisville: John Knox press.]
- 양선건 (2018). **아우구스티누스의 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Yang, S. G. (2018). *On St. Augustine's virtue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윤석후 (2010).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나타난 행복의 문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Yoon, S. H. (2010). *The issue of happiness in Augustine's thought*.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이지영 역 (2002). **중독과 은혜**. Gerald, G. M. (1991).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서울: IVP.
- [Lee, J. Y. (2002).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Seoul: IVP. Trans. Gerald, G. M. (1991).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San Fransisco: Harper One.]
- 이병철 (1987a). **성서원어대전 구약신학사전 II**. 서울: 브니엘 출판사.
- [Lee, B. C. (1987a). *Old Testament Theological Dictionary II*. Seoul: Beniel Publishing Company.]
- 이병철 (1987b). **성서원어대전 헬한 완벽사전 IV**. 서울: 브니엘 출판사.
- [Lee, B. C. (1987b). *Biblical Native Language Exhibition Greek-korean Perfect Dictionary IV*. Seoul: Beniel Publishing Company.]
- 정옥배 역 (1995). **요한복음 강해**. Bruce M. (1993). *The Message of John*. 서울: IVP.
- [Jeong, O. B. (1995). *The exegesis of John's gospel*. Seoul: IVP. Trans. Bruce M. (1993). *The Message of John*. Leicester: IVP of England.]
- “역경의 열매. 신용원 편”, 국민일보
- [Kook Min daily news. The fruit of hardship. Shin, Yong-won]

중독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이해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그리스도교 교양을 중심으로-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world-view on the addiction: focusing on Augustine's CONFESSIONES and DE DOCTRINA CHRISTIANA

남규열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제랄드 메이는 중독이 인간에게 끼치는 가장 큰 재앙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이해는 어거스틴의 중독에 대한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어거스틴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어거스틴은 향유와 사용의 개념을 통해 인간이 삼중적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질서 있는 사랑의 길을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런 질서 있는 관계를 벗어난 사랑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용의 대상인 세상을 향유하는 걸 오용(abusio)이라 부른다.

오용(abusio)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삼위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를 통해 드러내시는 당신의 본성을 보거나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어거스틴이 말한 오용(abusio)은 인간 안에 중독과 집착의 성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오용하는 대상에 인간이 더욱 집착하도록 만든다. 이런 현상이 깊어지면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더욱 더 파괴적인 중독현상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럼 자연인이 어떻게 이런 오용과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세상을 조화롭고 규모 있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환대할 때 가능하다 말한다. 더 나아가 인생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할 때 오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된다고 말한다.

주제어: 중독, 향유, 사용, 남용, 질서, 기쁨